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전략과 시사점

김 화 섭

2004. 4



• 차례 •

I. 연구 목적	1
II. 해외직접투자(走出去)의 위상 및 배경	3
1. 개방정책의 새로운 축	3
2. 경제환경 변화	5
3. 산업정책 측면	7
4. 기업정책(기업 집단화) 측면	10
III. 해외직접투자(走出去)의 현황 및 전망	12
1. 추이 및 특징	12
2. 투자 목적	22
3. 투자 전망	25
(1) 투자 규모	26
(2) 투자 대상 지역	26
(3) 투자 업종	27
(4) 소유제	27
(5) 투자 형태	28
(6) 투자 목적	30
IV. 해외직접투자(走出去) 관련 정책	32
1. 국가 전략	32
2. 관련 정책	33
3. 정책 전망	35
(1) 담당 부서 확대	35
(2) 경쟁력 강화 지원 조치	36
(3) 불법 및 부작용 방지 대책	38
(4) 권익 보호	39

V.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 및 대응 방향	40
1. 추이 및 특징	40
2. 투자 전망	45
(1) 시장 개척 및 기술 습득에 중점	45
(2) M&A가 주를 형성	46
(3) 브랜드 구입 증대	47
(4) 구미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직접투자	48
(5) 중간재 및 부품에 집중	48
(6) 투자환경 개선 요청 전망	51
3. 중국 투자 도입시 고려 요인	52
(1) 중국 시장 접근 용이성	53
(2) 원활한 분업체계 구축	54
(3) 산업 공동화 가능성 예방	56
(4)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기여	56
4. 대응 방향	58
(1) 한국 기술과 중국 자본의 결합 유도	58
(2) 부품·중간재는 수출과 연계된 다양한 전략 필요	58
(3) 지방 단위 유치 사절단 파견	59
(4) 차별적 입국 절차 간소화 고려	60
VI.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지평	61
참고문헌	63

• 표 차례 •

〈표Ⅲ-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	13
〈표Ⅲ-2〉 중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인가기준)	14
〈표Ⅲ-3〉 중국 주요 가전업체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	15
〈표Ⅲ-4〉 중국 해외직접투자(走出去) 분야 및 형태	21
〈표Ⅲ-5〉 중국기업에 의한 주요 M&A 사례	29
〈표Ⅲ-6〉 중국 해외직접투자(走出去)의 현황 및 전망	30
〈표Ⅳ-1〉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인가기준)	38
〈표Ⅴ-1〉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여타 국가와의 비교) ..	41
〈표Ⅴ-2〉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특징	44
〈표Ⅴ-3〉 한국의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	50

• 그림 차례 •

〈그림 V-1〉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 비교	49
〈그림 V-2〉 중국의 주요 거점 지역	55

I. 연구 목적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중국 기업이 국내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인정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중견기업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경제계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선진국인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에서도 기업을 매수하거나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선진국으로 진출하거나 선진국의 기업을 사들이는 것은,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의 시장 및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잡은 중국에도 자금이 풍부하고 글로벌화된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2003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기업 해외직접투자 상담회(中國企業“走出去”發展項目推介會)」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외자 도입국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중국이 해외직접투자(走出去)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끌 만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해외직접투자(走出去)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주로 어떤 국가에 진출하는 것인지, 진출 대상이 되는 국가에 따라 진출형태가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인지, 향후에는 해외직접투자(走出去)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파악하고 전망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향후 중국에서는 글로벌화된 기업이 다수 나타날 것이며, 해외직접투자(走出去) 규모 또한 대규모화될 것이다. 투자 대상지역은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확대될 것이며 투자형태도 대상지역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가 이러한 모습으로 전개된다면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 및 활성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走出去)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지를 유추·예측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추·예측해본 다음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연구해 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은 중국의 모든 기업이 아니라 모기업이 중국 내 소재한 기업에 한한다. 즉 중국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기업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II. 해외직접투자(走出去)의 위상 및 배경

1. 개방정책의 새로운 축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즉 引進來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引進來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다각적이고 시의 적절한 개선을 통해 외자도입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중국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는 引進來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引進來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래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금융, 보험, 유통, 상업 및 전신 등 서비스 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2년 11월 중국 정부가 상장기업의 국유주 및 법인주를 외국기업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의 M&A가 대중투자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에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국내기업 매수에 관한 잠정 규정(外國投資者 併購境內企業暫定規定)」이 제정·발표되었으며,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정부기구 개혁으로 인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務院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가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국유기업의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감안하면 외자에 의한 M&A 혹은 주식매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업종을 짐작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은 수입관세가 비교적 높은 업종이다. 자동차산업 분야에서는 WTO 가입 이전부터 외자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중국 내 유명 자동차 기업의 국유주가 일시에 외자에 팔릴 가능성도 있다. 화학산업은 비관세 장벽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예를 들어 화공원료 분야에서는 수입 할당제가 엄격히 실시되고 있다. 금융업 또한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업종이다. 금융업은 2006년에 이르러야 전면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지만 현재 일부 구미은행이 중국기업의 불량채권을 구입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자에 의한 중국기업 M&A(引進來정책의 변화)가 중국 대외개방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에는 이보다 높은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있다. 引進來정책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바로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정책이다. 2002년 走出去는 국가전략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2002년 당시 국가대외경제협력부 石广生 부장은 “중국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¹⁾라고 언급하

1) 石广生 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경제적인 논리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고위 관련자의 발언은 책임 있게 실시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중국에서 경제정책을 판단할 경우 문화적인 요인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그 근거로서 중국의 '세계 6위 무역대국', '세계 제2위의 외화보유국' 등을 들었다.

현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에는 해외에서의 자원개발, 농업개발, 생산거점 설립, 해외주식시장에의 상장 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M&A를 비롯하여 R&D센터의 건립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야호로 중국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겠다.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에서 走出去는 引进來와 함께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움직임에 대해 하나씩 의문을 풀어보기로 하자.

2. 경제환경 변화

중국 당국은 각종 공식 비공식 발표를 통해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세계 2위의 외화보유국 및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위상 강화, WTO 가입,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비난 회피 수단 등을 들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른바 외화벌이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개방 초기부터 외환 통제를 엄격하게 실시했다. 그런데 해외직접투자(走出去)는 외화벌이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즉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정책은 이미 충분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4년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규모에 있어서도 중국은 세계 선두그룹(6위)에 포함되어 있다. 무역거래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국제 경제 교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국가간 경제교류가 다양해지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외화보유고와 무역규모의 확대는 외자도입뿐만 아니라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 경제교류에 발판을 제공했다 하겠다.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 20여 년의 성과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노무 관리, 기술 수준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실시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해 가맹국들에 시장 개방을 보다 확대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 가맹국 역시 중국에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바 중국으로서는 해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 및 선진국으로부터의 각종 경제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해외직접투자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임금 정책은 선진제국으로부터의 외자를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인근 국가들로 도입되는 외자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현재 중국이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의 저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위안화의 가치 절상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즉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난과 압력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해외직접투자(走出去)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배경은 중국 측이 주장하는 이러한 배경 이외에 개혁·개방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업정책의 연장선 혹은 산업정책의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3. 산업정책 측면

1979년 개혁·개방정책 표방 이후 경제현대화라는 명제 하에 각종 경제정책을 실시해 온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 및 서구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80년대 당시 산업정책은 계획원리와 시장 메커니즘의 병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자원·요소분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대에는 기존의 산업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1990年代國家產業政策綱要」가 발표되면서 산업정책은 경제발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새로운 산업정책이 공표된다는 것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리

고 이에 따른 경제환경이 변화할수록 정책 대상 및 수단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요 육성 대상 부문, 정책 수단, 주요 자금원 등에서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목표가 중국 산업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 산업구조 정책, 산업조직 정책, 산업배치 정책 및 산업기술 정책 등으로 나누어진다.

산업구조 정책은 자원의 산업간 배분구조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 생산의 기반 강화와 전면적인 농촌경제 발전, 기초산업의 대대적 강화를 통한 기초공업의 낙후 상황 해소,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통한 신제품 개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산업조직 정책은 산업 내부에서의 자원 배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합리적인 경쟁촉진과 규모 경제 실현 및 생산의 전문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업배치 정책은 자원의 공간적 배분 문제에 착안하고 있다. 경제발달 지역의 우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경제 낙후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여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기술 정책은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러한 산업정책과의 연계 혹은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산업조직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다.²⁾ 중국 산업기술 정책의 구체적인

2)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실행방안에는 응용기술 개발 촉진, 과학연구와 생산간의 상호 결합 장려, 상품의 품질 및 기술 성능 향상 등과 함께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외국 선진기술 도입은 '기술우물정책'이라는 독특한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깊은 우물 속에 자갈을 던지면 그 자갈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중국시장에 외국 기업이 진출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중국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의미이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기술우물정책은 13억의 인구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 중국은 기술우물정책을 통해 눈부신 기술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술우물정책만으로는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기술도입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기술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에서 나타나는데 그 특성을 산업정책(산업기술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향후 중국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기존 산업 가운데 기술이 표준화된 산업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섬유 및 가전 등 산업에서의 해외투자는 해외시장 확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초창기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국내(한국) 산업구조 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다. 중국의 이러한 해외투자는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으

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산업구조 조정 정책과 연계되어 나타날 것이다.

4. 기업정책(기업 집단화) 측면

중국 산업정책 가운데 산업조직 정책의 중점은 국유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어지고 있다. 국유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는 기업집단화가 유력한 수단으로 제기되었다. 기업이 집단화되면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도입된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민경제에 효과적으로 보급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의 자이바쓰(財閥)나 한국의 재벌이 기술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해외시장에서 세계 굴지의 서방 대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자본·기술·노무·투자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보다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유자산의 주식제 경영, 합병, 연합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소형 국유기업을 대기업 일관 생산체계의 일원으로 개조시켜 전문화된 생산경영 기업집단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 결과 중국에서도 글로벌화된 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 가운데에는 중국 기업이 11개

포함되어 있는데 海爾(가전), 紅塔山(담배) 등이 대표적이다. 즉 기업집단화 정책은 당초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해외경영(해외투자)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만큼 변화·발전했다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향후에도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확대와 이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정책(집단화)의 결과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Ⅲ. 해외직접투자(走出去)의 현황 및 전망

1. 추이 및 특징

(1) 투자 규모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는 1979년에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표Ⅲ-1>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해외투자 금액은 93억 4000만 달러, 6,960건(이상 인가기준)에 이른다.¹⁾ 평균 투자금액은 약 134만 달러로 선진국의 평균 해외투자 금액 600만 달러는 물론 개도국의 평균 해외투자 금액인 450만 달러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2002년 한 해의 해외투자 통계를 보면 9억 8,300만 달러, 350건으로 건당 투자 금액은 28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여전히 개도국의 평균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투자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走出去 350건, 9억 8,300만 달러는 제외된 통계이다.

표Ⅲ-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연 도	건 수	금 액
1991	270	760
1994	4,557	5,524
1998(상반기)	5,666	6,000
1999	5,976	6,950
2002	6,960	9,340

자료: “中國企業 ‘走出去’ 面面觀”, 「國際先驅導報」, 2003. 9.
주: 누계, 인가 기준.

(2) 투자 대상 지역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북미 등이 뒤를 잇고 있다(건수 기준). 아시아 지역 가운데에는 홍콩 및 마카오를 비롯하여 ASEAN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과 이들 지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 특히 화교자본을 매개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ASEAN 각국에서는 중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베라 주 탄준마림 지구에 공업단지를 건설한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중국내 글로벌화된 기업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海爾集團(미국, 이탈리아), 春蘭集團(미국, 일본, 이탈리아), 万向集團(미국, 영국, 독일)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선진국도 있다. 영국의 경우 2003년 6월

표Ⅲ-2 중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인가기준)
단위 : 건수, %, 억 달러

	2002년				2002년 말 현재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141	40	6.1	62	3,672	53	54.8	59
한국	7	2	0.8	8	62	1	1.1	1
유럽	63	18	0.7	7	1,194	17	5.6	6
아프리카	36	10	0.6	6	585	9	8.2	9
북미	45	13	1.5	16	847	12	12.7	13
중남미	46	13	0.4	4	362	5	6.6	7
대양주	19	6	0.5	5	300	4	5.5	6
계	350	100	9.8	100	6,960	100	93.4	100

자료 :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2003.

북진성 복주에서 중국기업 유치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스웨덴은 이보다 앞선 2002년에 상해에 중국기업 유치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소를 개설했다. 즉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에서 선진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최근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3) 투자 업종·소유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초창기에는 무역사무소,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광산 채굴, 농업 개발 및 음식업 등 서비스업과 자원 개발에 집중되었다(「國際先驅導報」, 2003). 이러한 투자는 세계 시장에서의 무역확대 노력(무역 사무소 개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비교우위 활용 가능(음식업), 그리고 중국 내

표Ⅲ-3 중국 주요 가전업체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

기업명	투 자 지 역
靑島海爾	미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나이지리아 등
靑島海信	미국, 일본,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江蘇春蘭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러시아, 파키스탄 등
深圳康住	미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등
四川長虹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廣東TCL	인도, 베트남 등
廣東科龍	말레이시아, 인도 등
深圳創維	멕시코, 터키 등

자료 : 「中國投資」, 2003. 3.

에너지·자원 부족 등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海爾集團을 비롯하여 康住(KONKA)集團, 聯想集團 등 400여개 중국 기업은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 센터 등을 세계 각지에 설립·운영하고 있다. 즉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이 자원개발 등에서 시장개발 및 연구개발로 이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개별 업종에서는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전분야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海爾集團을 비롯하여 江蘇春蘭集團, 四川長虹集團 등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가전업체들은 모두 해외에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표Ⅲ-3〉 참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에서는 외환관리가 엄격하다.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경제체제상 국가주도(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 투자 기업에는 국유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TCL(가전), 万向(자동차 부품), 新稀望(사료, 부동산, 금융) 등의 기업을 들 수 있다.

(4) 투자 분야·형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은 구체적인 분야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자원, 기술, 제품, 브랜드 및 유통 등의 분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면서 언급한다. 한편 여기서 투자 형태라 함은 현지 생산라인 건설, 매수 및 M&A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별 특징은 구체적인 투자분야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설명하기로 한다.

1) 자원 분야

□ 생산기지 건설을 통한 자원 확보

上海宝钢은 브라질의 세계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와 합작으로 총 80억 달러를 투자하여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그 결과 이 공장은 上海宝钢에 고급 원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 해외 자원 자산 매입

中國化工進出口公司是 1억 500만 달러를 들여 아랍에미리트 천연가스田 자산 일부를 구입하였다. 이는 중국이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구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 외국기업의 주식 구입

中國有色金屬集團公司는 2004년 1월 현재 동광석을 생산하는 외국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면 동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기술 분야

□ 인수 이후 설비 및 인력 이전

에어콘 생산업체인 廣東美的는 2001년 10월 2,000만 달러를 출자하여 일본 산요전기의 전자레인지 오븐 사업부를 인수했다. 廣東美的는 관련 인력 및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사업부 인수

전자업체인 京東方科技集團은 3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첨단기술 업체인 한국의 하이디스 초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 사업부를 인수했다. 이로 인해 京東方科技集團은 TFT-LCD에 관한 연구 및 생산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세계 9대 생산기업이 되었다. 중국은 하이디스 TFT-LCD 사업부 인수를 1949년 신중국 설립 이래 최대의 인수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 연구개발 센터 설립 및 생산기지 건설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회사인 華爲科技는 인도 벵갈로시

(인도 IT 중심지)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1,500여명의 현지 연구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5억 달러를 투자하여 멕시코에 생산 센터를 설립하였다.

□ 외국 기술 인수 후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

중국 전력 설비 및 기계 설비의 최대 생산 기업인 上海電氣集團(SEC)은 2002년 1월 2,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일본의 유명한 인쇄기계 생산업체(특수 인쇄제조 기술 보유회사)인 아키야마(AIC)사를 인수했다. 上海電氣集團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동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

3) 제품 분야

□ 파산 직전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인수

華意集團은 2003년 미국 Moltech전력회사를 인수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하고 있는 동 회사는 축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미국 「파산법」에 의거 영가 매각이 가능했다. 華意集團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 멕시코 등에서도 Moltech사를 경영하고 있다.

□ 현지화된 생산라인을 인수한 후 현지 시장 확대

가전업체인 海信集團은 남아공에서 한국 대우전자의 생산 시설 및 생산라인을 인수했다. 그 이후 海信集團은 생산능력을 증강하여 남아공에서 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 유명기업 인수 후 OEM 납품 및 인수 거점으로 활용

万向集團은 40여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중국 500대 기업에 속한다. 동 기업은 미국 UAI사의 주식 대부분을 구입하여 최대 주주가 된 다음 미국 UAI사에 자동차 부품을 OEM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elgin 시에 「万向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기금은 미국 내 UAI사 제품 수요처 조사 및 여타 미국 자동차 부품회사가 중국에서 원재료 및 부품을 구입하거나 중국기업이 미국 내에서 인수 및 합병 기업을 물색하는데 이용된다.

상해에 소재하고 있는 통신설비 제조기업인 東方通信公司(Easecom)는 2003년 말 나스닥을 통해 Interwave社 주식의 19%를 매입했다. Interwave社는 GSM/GPRS 인터넷 설비 생산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투자 조건에는 Interwave社가 매년 東方通信公司로부터 연간 2,500만 달러 규모의 설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브랜드 분야

□ 국제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 다음 중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

海爾集團은 미국의 유통회사인 Je-mal과 합작으로 미국 내에서 海爾美國公司를 설립하였다. 동 회사는 미국 내에서 海爾 냉장고, 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 판매를 전담하고 있다. 동 회사는 미국 내에서 소형 에어컨과 냉장고 시장점유율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 회사의 미국 내 브랜드 가치는 제고

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유명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중국 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Multibrand Portfolio 전략

광주 주강 피아노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무실과 설계 센터를 설립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동 회사는 미국의 관리 인 및 기술자를 고용하여 미국의 다양한 시장(세분화된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동 회사는 주강 브랜드를 사용하는 동시에 미국의 현대 가구에 걸맞게 설계된 Herman Miller 브랜드와 이미 인수한 독일의 Rudis heimer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광주 주강 피아노 회사의 시장세분화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 동 회사의 미국 내 피아노 시장 점유율은 40%에 이르고 있다.

□ Global Niche Branding

중국 최대 담배제조회사인 紅塔山集團은 최근(2003년 11월) 독일 담배제조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紅塔山集團이 중국 국내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의 담배를 생산 판매하려는 의도는, 중국 내 시장을 외국 기업에 잠식당하는 것보다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생산·판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 유통 분야

□ 유통망 교환 및 합작

海爾集團과 일본의 산요전기는 상호 유통망을 교환·이용할

표Ⅲ-4 중국 해외직접투자(走出去) 분야 및 형태

분야	형태	사례
자 원	생산기지 건설	上海宝鋼, 브라질 철광석 생산업체 합작
	자산 매입	中國化工進出口公司, 아랍에미리트 천연 가스田 자산 일부 구입
	주식 구입	中國有色金屬集團公司, 동광석 생산 외국 기업 주식 구입 계획
기 술	인수 이후 설비 인력 이전	廣東美的, 일본 산요전기 전자레인지 오븐 사업부 인수
	고급기술 사업부 인수	京東方科技集團, 한국 하이디스(TFT-LCD) 사업부 인수
	R&D 센터 설립	華爲科技, 인도 벵갈로시에 연구개발 센터 설립
	인수 이후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	上海電氣集團(SEC), 일본 아키야마(AIC) 사 인수
제 품	파산 직전 기업 인수	華意集團, 미국 전력회사 Moltech 인수
	현지화된 생산라인 인수	海信集團, 남아공에서 대우전자의 생산라인 인수
	인수 후 OEM 납품	萬向集團, 미국 UAI사의 주식 대부분을 구입
브 랜 드	국제시장 인지도 제고→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	海爾集團, 미국의 유통회사인 Je-mal과 합작으로 미국 내 海爾美國公司 설립
	멀티 브랜드 전략	주강 피아노 회사, 미국 시장에서 주강 브랜드, Herman Miller 브랜드, Rudis heimer 브랜드(독일) 사용
	틈새시장 활용	紅塔山集團, 독일 담배제조회사 브랜드 사용 → 국내 시장에서 활용
유 통	합작을 통한 유통망 교환	海爾集團과 일본의 산요전기
	유통 센터 건립	華聯集團, 루마니아에 대형 쇼핑센터 건립(취급 제품 80% 중국산)
	기업 인수 후 유통망 활용	TCL集團, 유럽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스나이더 전기' 인수

수 있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로써 海爾集團은 일본 내에서 산요전기의 유통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²⁾

□ 외국에서 대형 유통센터 건립

華聯集團은 루마니아에 대형 쇼핑센터를 건립했다. 이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물건 가운데에는 80% 이상이 중국산이다.

□ 현지 기업 인수 후 신시장 개척

TCL集團은 유럽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유일의 전기회사인 스나이더 전기를 인수했다. 또한 TCL集團은 미국 DVD 플레이어 제조회사인 Govedio사도 인수했다. 이것 또한 미국 내 Govedio사의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Ⅲ-4>이다.

2. 투자 목적

해외직접 투자의 목적은 코스트 절감, 시장 개척 및 보호, 우수 경영자원 도입 그리고 안정적 자원 확보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는 코스트 절감형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자원 확보형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코스트 절감형 및 자원 확보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시장 관련 그리고

2) 일본의 산요전기 또한 중국 내에서 海爾集團의 유통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수 경영자원 확보 관련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두기로 한다.

(1) 시장 관련

일반적으로 해외투자 목적이 시장 개척 및 보호에 있을 때 시장이라고 함은 그 대상이 외국의 시장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목적이 시장 관련인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시장에는 중국 자체 시장도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 시장과 중국 시장으로 나누어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여기서도 앞에서 언급한 투자 분야별 현황 및 특징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한다.

1) 외국 시장 개척, 확보 및 보호

상해에 소재하고 있는 東方通信公司가 미국 Interwave사의 주식을 구매한 사례, 華意集團이 미국 Moltech사를 인수한 사례, 万向集團이 미국 UAI사의 대주주가 된 사례, 광주 주강 피아노가 미국에서 멀티 브랜드 전략을 펴고 있는 사례, 그리고 TCL集團이 독일의 스나이더 전기를 인수한 사례 등은 선진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일환이다.

海信集團이 남아공에서 대우전자의 생산라인을 인수한 사례, 華聯集團이 루마니아에서 대형 쇼핑센터를 건립한 사례 등은 중국의 개도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 사례도 있다. 重慶에 본부를 두고 있는 力帆이 베트남에 투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0년 당시 중국(특히 力帆)은 베트남으로 대량의 오토바

이를 수출했다. 그러나 2001년 베트남 정부가 오토바이 생산의 국산화를 위해 고관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당초 60%였던 관세가 100%까지 올랐다. 베트남의 연간 오토바이 소비량은 160만~180만대 정도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이다. 力帆으로서 는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을 경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의 투자(생산 시설 건설)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한편 力帆이 베트남에 투자한 것은 베트남이 ASEAN에 가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베트남에서의 생산은 여타 ASEAN 지역으로의 제품(오토바이) 수출 또한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2) 중국 시장 확대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시장이라는 의미는 중국 기업으로서도 중국 시장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 및 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실제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는 중국 시장 확대에 목적을 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海爾集團이 미국에서 海爾美國集團을 설립한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³⁾ 紅塔山이 독일 담배회사 브랜드 사용권을 구입한 것 그리고 上海電氣

3) 海爾集團의 CEO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내 시장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국제시장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爲了在國內市場取得勝利, 你必順在國外市場取得勝利)고 언급한 바 있다.

集團(SEC)이 일본 아키야마 인쇄소를 인수한 것 또한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2) 우수 경영 자원 관련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M&A를 하는 행위에는 보다 우수한 기업 경영 기법을 배우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東方通信公司의 미국 Interwave사 주식 구매, 華意集團의 미국 Moltech사 인수, 万向集團의 미국 UAI사 주식 대량 구매 등 중국 기업의 선진국 시장 개척 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우수 경영자원 확보라는 목적도 염두에 두고 있다.

廣東美的가 일본 산요전기를 인수한 사례는 우수한 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華爲技術가 인도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한 것은 R&D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京東方科技集團이 한국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를 인수한 것은 기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京東方科技集團의 한국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는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인 '기술도입의 연장선'과도 맥을 같이한다.

3. 투자 전망

앞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走出去에 대해 투자규모, 업종·소유제별, 대상지역별, 구체적 분야·형태별 그리고 목적

별로 나누어 언급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다음 향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본다.

(1) 투자 규모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건당 평균 투자 규모는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경험부족 국가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최근 들어 건당 투자 규모가 다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개도국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향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 건당 평균 투자규모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체제상 정부로부터의 외환통제가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에너지 및 자원분야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장래에 건당 평균 투자 규모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 대상 지역

초창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의 취약점인 에너지 및 자원 부족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이에 따라 중동 및 중앙아시아가 주요 투자 대상 지역이었다. 최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개도국 및 구미선진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 가운데에는 ASEAN지역이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ASEAN지역이 화교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향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은 현재의 분포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대상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3) 투자 업종

초창기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와 무역사무소 및 요식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제조업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점차 수입 비중이 높아지는 중간재 및 부품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⁴⁾ 한편 중국은 에너지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 시베리아 유전 개발을 둘러싸고 일본과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⁵⁾

(4) 소유제

당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했던 기업은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China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orpo-

4) 해외직접투자에서 부품·중간재에 중점을 두는 것은 개도국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5) 중국이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2003년 3월 개최된 제10기 전인대때에 발표된 동북지방 개발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ration)⁶)를 비롯하여 中國銀行, 中國石油(Petro China Company Limited), 中化集團(SINOCHEM) 등 대형 국유기업이었다. 또한 走出去가 가장 활발한 가전업계의 기업들 대부분 또한 국유기업이다. 최근 万向, 新稀望 등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유기업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점차 시장경제화되어 감에 따라 효율성 또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WTO 가입 이후 전 업종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다. 특히 2003년 3월 외자에 의한 중국 국유기업 M&A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민간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경쟁력을 갖춘 민간 기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투자 형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역 사무소 개설 형태로 해외투자가 시작되었다. 최근 제조업의 투자가 증대되면서 생산라인 건설 및 외국 기업 인수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라인 건설은 주로 개도국에서 그리고 M&A 등의 형태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이

6) 구미에 수십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최초의 다국적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표Ⅲ-5 중국기업에 의한 주요 M&A 사례
단위 : 만 달러

중국 기업	대상 기업	금 액
海爾集團	이탈리아 냉장고 공장	700
万向集團	미국 UAI	280
華立集團	필립스 CDMA 이동통신부	*
中國海洋石油總公司	인도네시아의 스페인 소유 유전 일부	59,000
京東方科技集團	한국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38,000
上海汽車集團	한국 GM 대우자동차 주식 10%	5,970
江蘇飛達工具集團	일본 제철 공장	36

자료 : 21世紀經濟報道(2003. 3. 31).

루어졌다. 향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는 M&A 비중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M&A하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기업 물색을 대행하는 회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⁷⁾

한편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중국 기업간의 합작을 통한 走出去가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네트워크 형성 또는 각종 사업 상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7) 현재 上海產權交易中心이 중국기업의 해외 M&A 취급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6) 투자 목적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도국에서는 주로 시장 방어 목적으로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시장 개척 및 우수 경영확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 시장 확대라는 이색적인 형태도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목적은 이러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시장 방어 및 시장 보호 차원

표Ⅲ-6 중국 해외직접투자(走出去)의 현황 및 전망

	초 창 기	현 재	미 래
규 모	소규모	점차 확대	대규모에는 제한이 따를 듯(자원 개발 제외)
업 종	서비스(무역 사무소 등),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제조업 비중 증대	제조업(특히 부품 중간재) 비중 증대, 자원 개발 투자 지속
소 유 형태	국유기업	민간기업 대두	민간기업 비중 증대
대 상 지역	선진국(무역 사무소), 중동, 중앙 아시아	개도국(ASEAN : 화교 네트워크 활용, 생산라인 건설), 선진국(M&A 위주)	대상 지역 확대
형 태	무역 사무소	생산라인 건설(主) M&A(補)	M&A 비중 증대
목 적	시장 확대, 자원 확보	시장 방어(개도국) 시장 개척(선진국)	코스트 인하 비중 증대(개도국), R&D 센터 설립(선진국)

이 아니라 생산 코스트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중국 당국은 이미 1999년 ‘원 부자재를 수반한 기업의 해외투자 장려에 관한 의견(關於鼓勵企業開展境外帶料加工裝配業務意見)’을 제정하면서 원·부자재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한 바 있다. 즉 섬유 및 가전 등 노동집약산업의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코스트 인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 또한 기대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업종에서의 활발한 해외직접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 인하를 염두에 둔 개도국 투자에서는 중국기업 전용 공단 조성의 형태도 예상된다. 선진국에 대한 투자에서는 R&D센터 설립 비중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해외직접투자(走出去) 관련 정책

1. 국가 전략

국제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79년 당11기 3중 전회 이후이다. 이 때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공표하였으며 중국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선을 보였다. 제14차 당 대회 때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공표되었으며, 제15차 당 대회 때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동시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0년 중국 정부는 해외직접투자(走出去)는 외자도입(引進來)과 함께 서로 보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2002년 드디어 중앙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외자도입과 함께 대외개방의 양대 축으로 인정하고 국내(중국 내)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국가 전략으로 자리잡게 된다. 당시 국가대외경제협력부 石广生 부장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적기¹⁾이다(与时俱

1) 여기서 적기라 함은 이미 제2장에서 언급한 走出去 배경(경제적 환경 변화)에 해당한다.

進)”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 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해외직접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기업 설립 및 활동이 국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외국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하겠다는 의도이다. 즉 해외직접투자가 중국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중국에서 해외직접투자는 2002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았으며 그 이후 해외직접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관련 정책

중국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부처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다. 특히 주외국 경제부처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각급 대외경제무역관련 부처는 “힘 있게 추진해야 하며(促進有力),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保障有效), 제대로 된 방향 감각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監管有方)”라는 원칙 하에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주외국 경제부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투자대상 지역의 각종 산업, 투자 환경, 법률, 재무, 사법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구

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²⁾

기타 구체적인 정책조치로는 해외투자자금 대출, 해외에서 얻은 배당금 강제회수 완화 그리고 투자보험³⁾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투자자금 대출⁴⁾은 1992년부터 그리고 배당금 강제회수 완화⁵⁾는 1999년 이후 실시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허용되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부처의 기본 방침을 정해두고 있으며 대출 보험 및 배당금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원활한 해외직접투자에는 정책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관련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
- 2) 중국의 走出去 기업은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투자대상 지역 중국 대사관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었다.
 - 3) 중국은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01년 北京에 자본금 40억 위안의 수출신용보험공사(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를 설립하고, 2003년부터 배당, 외환, 전쟁 등과 관련된 위험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 4) 대출 조건으로는 첫째, 국유기업이어야 할 것, 둘째, 투자대상 지역이 원조성 자금을 수혜한 국가여야 할 것, 셋째, 자금 신청자 및 담보 제공자는 최근 3년간 기업 경영 수치 흑자를 기록할 것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5) 종전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5%에 상응하는 과실 송금 보증금 예치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얻은 이익금은 반드시 배당을 통해 국내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익금을 재투자나 증자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여 이익금을 기한 내에 국내 송금하지 않을 경우 외화 도피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했다. 그러나 최근 이익금에 대해서는 현지 유보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이익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토록 개선되었다(김주영, 2004).

3. 정책 전망

현재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이 미비한 상태이지만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담당 부서의 확대가 예상되며 이들 담당 부서는 외국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지원정책 그리고 기업의 해외활동에서 파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1) 담당 부서 확대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즉 引進來 관련 정책들을 만들거나 개선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은 대외관계 부처 및 부서들에 의해 담당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바 대외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관련업무가 독립성이 결여된 채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해외직접투자를 의자도입과 함께 대외개방의 양대 축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해외직접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외직접투자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일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부서를 두더라도 기본 원칙은 정부-기업 분리(政企分開)에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 또한 글로벌 시대에 중국 기업이 외국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국제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래의 직접 방식을 지양하고 간접 지원 및 간접 규제 방식이 주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쟁력 강화 지원 조치

1) 인력 양성

앞에서 중국 정부가 해외주재 공관에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해당지역에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산업, 투자 환경, 법률, 재무, 사법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정보·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는 재외 공관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정부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 당국은 해외직접투자 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역사가 일천하여 해외 경영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족은 기업 수지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

라 중국 정부는 기업의 해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예를 들면 현지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교육에는 중국 내 외국계 기업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외환 규제 명확화 등

중국이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외환보유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외환사용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외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중앙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정부가 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정부가 통제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해외직접투자 허가 업무를 동등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 당국은 해외직접투자 업무를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다음 그 지역의 각종 경제사정에 따라 허가 한도를 차등적으로 정해둘 가능성이 있다. 즉 2002년 10월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외환관리 완화가 특정 지역⁶⁾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외환관리 완화가 보다 세밀하게 시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업종 또는 투자 형태(생산라인 건설 혹은 M&A) 등에 따라서는 허가 금액 한도에는 차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등에서는 여타 업종에 비해 투자 금액한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6) 절강성, 상해, 강소성, 산둥성, 복건성, 북경, 천진, 사천성 그리고 후룡강성 등이다.

한편 기업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각종 담보, 보험, 금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관, 검역, 출입국 관련 업무 등도 종전에 비해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 불법 및 부작용 방지 대책

기업의 해외투자에는 외환 유출이 수반된다. 또한 기업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면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없이 해외직접투자 하는 기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한국 중국대사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체 금액 가운데 약 1/3 정도는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없이 해외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통계 기준 중국의 대한민국 투자는 2002년 말 현재 62건, 1억 1,000만 달러인데 비해 한국 통계 기준으로는 2,732건, 4억 7,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중국 통계가 한국 통계에 비해 현격히 적게 나타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인가

표IV-1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인가기준)
단위 : 건수, 억 달러

	한국 통계(A)	중국 통계(B)
건 수	2,732	62
금 액	4.7	1.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商務部.

주 : 2002년 말 현재.

를 받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외환규제가 엄격한 중국 입장에서 불법 외환유출은 용납하기 힘든 사항이다. 따라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국내자산을 특별 관리하는 제도(예를 들면 시행령)를 제정하여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기업에 대해 외환, 세수 등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밀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중앙정부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허가 권한 등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게 되면, 이러한 메커니즘은 외국기업 인수 등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코스트 절감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지면 유사한 업종끼리 과당 경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4) 권익 보호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불확실성과 각종 장벽들이 완화된 상태에서 원활한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 대상국들과 각종 정부간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보호 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사법협조 협정, 경제협력 협정, 사회보장 협정 체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V.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 및 대응 방향

1. 추이 및 특징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03년 말 현재 3,624건, 5억 2,200만 달러에 이른다. 투자 건수만 보면,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14만 4,000달러 정도로 미국 및 일본의 평균 투자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으며, 여타 아시아 국가의 평균 투자 금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업종이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走出去) 가운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03년 1월 중국의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이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를 인수한 것과 2003년 12월 중국 기업(藍星集團)이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미 제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의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는 1949년 신중국 설립 이래 최대의 인수 사건으로 인정되고 있을 정도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매각 사실에 대해 다양

한 관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쌍용자동차 매각 의도와 관련하여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들이 많았다.

2004년 3월 현재 藍星集團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무산되었다.

표 V-1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여타 국가와의 비교)
단위 : 건,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누계 (1962~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협력기구	1	16	1	-	-	-	117	272
미주 지역	766	5,584	588	4,859	566	1,841	6,919	35,101
(미 국)	658	3,889	488	4,500	451	1,240	5,986	27,538
아주지역	2,076	2,343	1,421	2,269	1,483	1,486	15,198	26,249
(일 본)	591	772	474	1,404	495	541	7,719	13,256
(싱가포르)	58	190	48	146	44	236	453	2,730
(홍 콩)	71	167	86	234	62	55	675	1,813
(말레이시아)	117	785	70	210	36	417	567	6,494
(중 국)	812	70	442	249	522	50	3,624	522
(대 만)	32	314	28	9	35	15	303	719
(기 타)	395	45	273	17	289	172	1,857	715
EU(15개 국가)	306	3,062	264	1,663	282	3,061	3,420	27,641
기타 지역	269	287	161	310	263	79	1,443	1,854
합 계	3,418	11,292	2,435	9,101	2,594	6,467	27,097	91,117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1개 사업에 여러 나라가 투자한 경우 국별로 각각 건수를 계상함에 따라 다른 표와는 건수가 상이.

그리고 또 다른 중국업체인 상해자동차(上海汽車)가 유력한 협상대상자로 부상하고 있다. 藍星集團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것인가 아니면 상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것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¹⁾ 중요한 것은 중국 측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는 목적이 어떠한 의도에서 혹은 어떠한 전략에서 출발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중국 측의 전략은 단기간에 첨단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²⁾ 중국 측은 기존 연구 인력(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력) 등을 활용하여 중국에 TFT-LCD 공장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 에어컨 생산업체인 廣東美的가 일본 산요전기의 전자 오븐 레인지 사업부를 인수한 다음 관련 인원 및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술 도입이 핵심 관심사항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쌍용자동차 인수 의도는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물론 중국의 기업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쌍용자동차 공

1)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같은 중국 기업인 藍星集團과 상해자동차가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미 제Ⅳ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투자와 관련된 외환관리는 그 해당지역에 있다'는 분권화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2)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Ⅱ장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장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쌍용자동차 인수나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 인수에는 또 다른 전략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藍星集團 측은 “동 그룹의 주력은 화공분야이지만 산하에 지프 생산과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中車 그룹이 있으며 일반 시장에도 영업기반이 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의 중국 시장 진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는 유통망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바 중국 藍星 측의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³⁾ 그런데 쌍용 자동차가 여타 자동차에 비해 중국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려면 우선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야 한다. 생산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藍星측이 당장은 공장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지는 않겠지만 부품⁴⁾ 등을 중국에서부터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절강성의 萬向集團이 미국 UAI사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 동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전략을 연상케 한다. 결국 藍星그룹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완성차 그 자체가 아니라 부품 및 중간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의 하이디스 반도체

3) 藍星集團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무산되었지만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중국 내수시장 유통망 이용은, 海爾集團의 海爾美國集團 설립 목적이나 紅塔山의 독일 담배회사 브랜드 구입 목적과 유사한 형태(중국 내수시장 진출)라고 할 수 있다.

4) 여기서 부품이라 함은, 藍星측 입장에서는 주로 자동차 내장용 화학재를 의미하며, 상해자동차 입장에서는 여타 범용 부품을 의미한다.

표 V-2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특징

대상 기업	특 징			
	분야	주요 목적 (유사 사례)	형 태	중 점 업 종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기술	첨단기술 습득(廣東美的의 일본 산요전기 전자 오븐 레인지 사업부 인수)	M&A	부품 및 중간재
쌍용 자동차	제품	시장 개척 및 확대(萬向集 團의 미국 UAI사 인수)	M&A	부품 및 중간재

TFT-LCD 사업부 인수 및 藍星集團의 쌍용자동차 인수 움직임에는 부품 및 중간재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⁵⁾ 지금까지 설명한 2건 사례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 <표 V-2>이다.

한편 2004년 4월 藍星集團의 자산은 종전에 비해 10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영 화학 업체 가운데 상당수를 藍星集團에 합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藍星集團이 쌍용자동차 인수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지었다면 인수에 필요한 자금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방침은 이미 제Ⅱ장 해외직접투자 배경에서 논의한 ‘기업 집단화 정책 측면’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5)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2개의 사례를 두고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走出去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중간재 및 부품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2. 투자 전망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전망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향후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움직임에 대해 전망해보기로 한다. 한편 이러한 전망에는 제Ⅱ장 및 제Ⅲ장에서 언급한 중국의 직접투자 특징과 정책 그리고 한·중 양국간 경제관계 등이 고려된다.

(1) 시장 개척 및 기술 습득에 중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코스트 절감이 주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생산 코스트가 중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직접투자의 주요 목적은 시장 개척이나 선진 기술 습득에 두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중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한국의 쌍용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수출하게 되면 이는 시장 개척이 주요 목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가 된다. 만약 장기적으로 중국에 쌍용자동차 생산라인이 설립된다면(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 목적은 중간재 및 부품 관련 기술 습득에 둘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그 특성상 생산 시설이 부품 조달선과 클러스터

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부품 및 중간재 업체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게 된다.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품 및 중간재 관련 기술을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를 인수한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앞장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목적은 시장 개척 및 기술 습득의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산업 기술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는 대부분 시장 개척 및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M&A가 주를 형성

한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투자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해 투자를 하게 되든지 투자 형태는 green field 투자가 아닌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M&A 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생산라인을 건설하게 되면 선진 기술 습득에 시간적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비상장 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전자, 반도체, IT(온라인 게임 포함)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측은 이러한 기업 인수를 위해 한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하

든지 각종 기업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사례로는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의 하이닉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를 비롯하여 上海電氣集團의 일본 아키야마(인쇄회사)사 인수 그리고 華意集團의 미국 Moltech 전력회사 인수 등이 대표적이다.

(3) 브랜드 구입 증대

현재 한국의 다수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 마케팅을 위해 중국 브랜드를 구입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주로 스포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경에는 國按이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이 팀의 정확한 명칭은 北京 現代 國按이다. 현대자동차가 축구팀의 명칭(브랜드)을 사들인 것이다. 물론 현대가 축구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팀 명칭 구입을 통한 스폰서이다. 이러한 스폰서 행위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행위의 일종이다. LG가 중국 내 각종 체육대회에 스폰서를 하는 것도 브랜드 구입의 일종이다.

그런데 향후에는 중국 기업의 한국 유명 기업 브랜드를 구입하려는 행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한·중 국교가 수립된 후 양국간 경제관계는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한국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바 브랜드 인지도가 높

은 한국 기업의 브랜드 구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4) 구미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직접투자

중국에 글로벌화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인재, 전략, 정보 분석 등의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 및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한국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 있다.⁶⁾ 선진 기업들과 합작을 할 경우 인재, 전략 및 정보 분석 등에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일반인들에게 구미 자본은 거부감이 작으나 중국 자본은 반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다. 上海汽車集團이 GM대우자동차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가 여기에 속한다.⁷⁾

(5) 중간재 및 부품에 집중

세계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

6) 여기서 구미 및 일본 기업이라고 함은 중국 내 활동 중인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내 이들 기업과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작 협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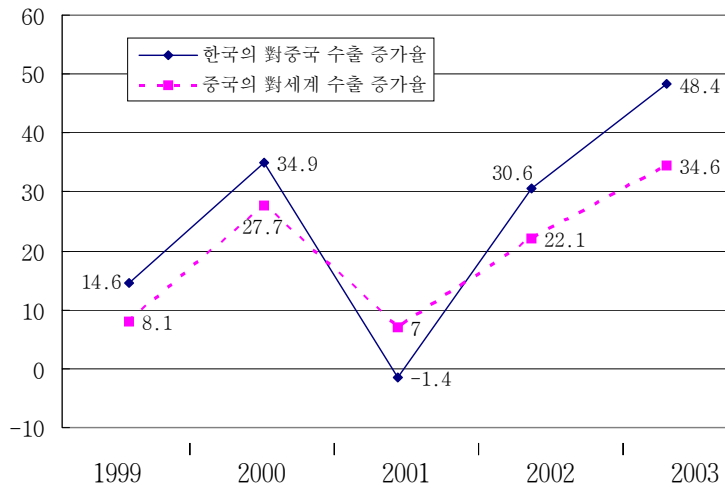
7) 현재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가운데 400여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 경제 환경의 특성보다는 모기업의 global strategy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의 무역에서는 드물게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적자폭이 매년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V-1>은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그래프로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늘어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 또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에게 주로 어떠한 상품을 수출하기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일까?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컴퓨터

그림 V-1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 비교

단위 : %



자료 : KOTIS.

주 : 200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11월 말 현재 기준.

터 부품, 무선 통신기기 부품, IC 반도체 등 중간재 및 부품 등이 집중되어 있다(〈표 V-3〉 참조). 이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많은 제품을 수출할수록 이러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많이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대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증대를 유발하여 한국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 가운데에는 중간재 및 부품의 대량 수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직

표 V-3 한국의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순위	품 목 명	2002		2003(1~11)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합성수지	1,694	6.9	2,049	34.5
2	PC부품	948	81.5	1,733	102.2
3	무선통신기기 부품	852	208.7	1,579	126.3
4	IC반도체	619	129.3	1,272	136.6
5	모니터	720	569.5	1,205	84.9
6	무선전화기	1,305	1,212.2	1,197	14.1
7	중유	697	-43.3	989	57.6
8	석유화학 합성원료	811	24.8	958	28.8
9	자동차 부품	169	116.2	821	510.0
10	열연강판	457	9.0	791	89.8
총 수출		23,754	30.6	31,488	48.4

자료 : KOTIS.

주 : MTI 3단위, 순위는 2003년 기준.

접투자할 때 어떠한 용도의 품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중간재 및 부품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의 하이닉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나 쌍용자동차 인수 의지도 중간재 및 부품 분야에서의 우선 투자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6) 투자환경 개선 요청 전망

1) 중국 자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완화 요청

최근 한국에서는 외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반외국인투자 정서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언론 등을 통해 이러한 거부감 완화에 앞장서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⁸⁾

2) 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

중국의 비즈니스맨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복잡한 입국 절차이다.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8) 중국에서는 언론이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 역시 정부로부터의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기업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BOE 하이디스 회장이 입국하는 데에도 복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우여곡절을 겪은 적이 있다. 중국 측은 기업인들에게만이라도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 각종 규제 완화 요청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각종 관련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투자장벽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거나 KOTRA 등에 투자와 관련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ONE-STOP 서비스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 투자 도입시 고려 요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자본이 한국으로 진출할 경우 중국은 한국 시장 개척 및 한국 기술 습득 등의 긍정적인 효과(이익)를 기대하게 된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자본을 유치할 경우 여타 선진국 으로부터의 자본유치에서 볼 수 있는 우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습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타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 자본의 도입 여부 및 도입 전략 등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다음의 사항(긍정적 기대효과)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1) 중국 시장 접근 용이성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유통망 확보이다. 중국에서는 유통망을 확보하면 시장 진출의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유통시장이 지나치게 폐쇄적인바 외국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유통망을 확보하는 전략으로는 현지 국유기업 등과의 합작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 가운데에는 영업실적 면에서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으나 국내 유통망 확보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통망이 확보된 다음에는 국내(한국) 선진 유통 기법을 교육·보급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 중국 자본이 유입될 경우에도 중국 내수 시장 유통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중국 기업이 중국 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러한 중국 자본을 유치한 국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유통 기법 및 교육 등은 한국 측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투자를 원하는 중국 측이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원활한 분업체계 구축

분업 체계에서도 유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시장이라는 용어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중국은 6개의 거점 단위(Mega Region)를 각각 마치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V-2〉참조). 대련 및 인근 지역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중심지로서 일본계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다. 북경·천진 지역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분야 연구개발 거점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청도 및 인근 지역은 냉동야채 및 가공식품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상해 및 인근지역(장강 삼각주)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발전된 곳이다. 상해는 금융, 상업 및 물류의 중심지이며 인근 소주 및 항주는 디지털 가전 산업(제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문 및 복주 인근은 대만과의 상호 의존관계가 높은 지역이다. 심천 및 광주 인근 지역(주강 삼각주)은 세계 최대 컴퓨터 산업 집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이들 지역은 각기 다른 산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산업 단지를 조성할 경우(또는 기 조성된 산업 단지라 하더라도) 중국 6개 거점 지역의 산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 거점 지역과는 산업적으로 차별화된 개

발 전략을 마련한다면 중국 각 거점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에 의한 분업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격차에 의한 분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해 인근 지역 산업에 필요한 부품을 주강 삼각주 지역과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상해-한국간 운송거리가 상해-주강간 운송거리에 비해 짧은바 물류비용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 한국과 상해지역간 활발한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 자본을 유치할 때 산업 입지 측면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림 V-2 중국의 주요 거점 지역



(3) 산업 공동화 가능성 예방

산업공동화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는 없으나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산업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2003년 5월 서울 지역 종업원 80명 이상의 220개 제조업체(대기업 47개, 중소기업 16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4~5년 이내 국내 산업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49.5%, 5~10년 이내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4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6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3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향후 4~5년 이내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이 54.7%, 향후 5년 이후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이 34.9%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면 그 대상지는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중국이라는 답변이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81%,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는 73.9%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는 향후 5년을 전후하여 국내 산업공동화 문제가 이슈로 대두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중국 자본이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 중국 자본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볼 만하다.

(4)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기여

전 세계 13억 인구에 달하는 화교는 각 소재 국가에서 막강

한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화교들은 중국 본토와의 상호 투자 및 무역 등을 통해 강력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화교들의 활동이 미약하다. 과거 한국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국내 화교 숫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초 약 8만 명 정도에 달했던 화교가 현재 2만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여타 국가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면 중국 자본의 국내 화교들에 대한 투자 및 연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각지에 다수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것이며 중국 자본의 차이나타운 건설에 대한 지원도 기대된다. 특히 2005년 세계 화상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이는 중국 자본 국내 유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자본의 국내 화상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되어 국내 화상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이들을 활용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 확대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또한 중국 자본 도입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

4. 대응 방향

(1) 한국 기술과 중국 자본의 결합 유도

국내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 설립 또는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굳이 국내 자본이 아니라 중국 자본과의 합작도 추진해볼 만하다. 합작 계약에 생산 라인을 한국에서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인은 중국 측 자본을 모색하는 데에도 비교우위가 없다. 정부 관련 부처, KOTRA 및 산업기술재단 등은 양국간 각종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해 우수 기술 보유 기업가들이 중국 자본을 접촉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상해 과학 기술 개발교류 중심과 한·중 기술투자 상담회를 가지고 있다. 산자부는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한·중 테크노 마트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KOTRA는 중국의 CCPIT와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가지고 있다.⁹⁾

(2) 부품·중간재는 수출과 연계된 다양한 전략 필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경우 부품·중간재에 집

9) 한편 전자 업종의 부품 관련자들은 이미 관련 연구소(국책 연구소)를 통해 중국 자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될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데 부품·중간재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자본이 도입되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이 동 부문에 집중 투자되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가 하면, 동 부문에서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실제 중국은 현재 중간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주체(국유기업, 민간기업, 산학공동 단체 등)의 동 산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가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부품·중간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이 또한 동 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산업에서 중국자본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 및 기술개발 등과 연계된 다양한 전략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지방 단위 유치 사절단 파견

중국의 경제성장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크게 기여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는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략이 동원되었다. 다양한 전략 가운데에는 외국(투자 대상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활용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투자 대상국을 직접 방문하는 주체는 중앙이 아닌 주로 지방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경제발전에 중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대상에 중국 자본이 포함된다면 중국의 투자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지방 단위에서 중국에 투자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는 방법이다. 특히 국내 각 지방에는 입주 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공단도 다수 존재하는바 지방 단위에서의 투자 유치 사절단 파견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본에서는 지방단위에서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베시의 경우 지진 이후 부흥계획의 일환으로 임해지역에 산업집적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기업 유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야자키현 센다이시는 '仙台中華街'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센다이 당국은 이 계획을 통해 약 200여개의 중국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센다이 시는 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인들의 내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 또한 국내 지방 단위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차별적 입국 절차 간소화 고려

중국인들에 대한 국내 입국 절차 간소화는 여러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한 기업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기업인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간소화를 건의하고 싶다.

Ⅵ.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지평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출 시장’, ‘수출 견인차’,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자’ 그리고 ‘산업공동화 유발 가능성’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자’라는 새로운 모습도 띠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게 이러한 다섯 가지 모습만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중국이 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대회와 같은 초대형 이벤트 개최는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해양 엑스포는 중국 IT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 개최 전에는 중국이 적어도 IT분야에서는 우리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대회 개최 이후 우리에게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지 아니면 우리 기술을 추월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IT기술이 여타 제조업과 융합될 경우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단독으로서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한국을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을 가진 미국기업이 중국으로 대거 생산기지를 옮기고 이러한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기업들 역시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면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된다. 반면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미국 기업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및 부품 공급을 원한다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는 세계 경제 혹은 동아시아 경제 분업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 또한 한국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면 논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관심과 분석 그리고 대응책 마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기존 패러다임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주영, “중국의 대한국 투자현황과 특징”, 200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화섭, “중국의 다양한 모습과 한국의 대응”, 「KIET 산업경제」, 2003. 12.
- 김화섭 외, 「중국 경제특구 기술개발구 조사연구」, 산업연구원, 2003. 9.
- 한병섭,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철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12.
- “中國企業 ‘走出去’ 面面觀”, 「國際先驅導報」, 2003. 9.
- 米爾頓·科特勒, “中國企業 ‘走出去’ 的24个戰略”, 「中國管理傳播罔」, 2003. 12.
- 石广生, “實施 ‘走出去’ 戰略 提高對外開放水平-學習〈江澤民論有中國特色社會主義〉的体会”,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直屬機關党委」, 2002. 11.
- 鐘朋榮, “中國企業：五种模式走出去”, 「經濟導報」, 2003. 7.
- 覃曉雪·李灵雅, “企業 ‘走出去’ 的障碍及對策”, 「貿研報告」, 2003. 12.
- 眞田 幸光, “中國企業の對日投資意慾に關する考察”, 「中國經濟」, 2003. 11.

Issue Paper 2004-15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전략과 시사점

發行處：産業研究院(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淸涼里洞 206-9)

發行人：오 상 봉

登錄：1983年 7月 7日 第6-0001號/電話：3299-3114

印刷：2004年 4月 9日/發行：2004年 4月 12日

印刷處：邦 文 社

ISBN 89-90789-44-3 93320

購讀問議：편집·보급팀(3299-3151)

內容의 無斷轉載 및 譯載를 禁함.

普及價 4,000원